

| 2014년 주님의교회 표어 |

주여, 나를 (롬 5:10)
평화의로구로 써주소서

함글함글

즐거워 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_롬 12:15

| 오늘의 말씀 |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약 1:27

2014년 6월 1일 주일 제 335호

발행인 : 박원호 | 편집인 : 김학원 |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 02-416-5181~2) | 편집 : 함글함글팀 주님의교회 홈페이지 www.pcltv.org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지난 5월 18일 2부 예배에서 봉헌 기도를 드리고 눈을 뜬 교인들은, 어느새 강단에 의자가 두 줄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성도의 교제 순서가 끝나자, 빨간 모자를 쓰고 바이올린을 든 소년을 따라, 나무 악기 밤벨을 든 크고 작은 열 두 소년과 선생님들이 강단 위로 올라와 의자에 앉았다. 곧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바이올린 독주로 <할아버지의 시계>가 연주되었다. 가슴에 서투른 현의 작은 떨림이 와 닿았다. 열두 소년들의 밤벨 연주로 <걱정 마요>가 이어졌다. 지휘를 맡은 선생님은 각 음계를 맡은 소년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면서 곡을 이끌었고, 뒤에 앉은 선생님들은 몸을 뒤틀고 모자를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소년들을 다독거리면서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걱정 마요 실망 마요
저 멀리서 별이 내려올 때
울지 말고 바라봐요
내 손에 담긴 작은 별들을
쉽게 놓쳐 버릴까봐
그만 놓쳐 버릴까봐
걱정 말고 믿어 봐요
나의 꿈을 잊지 마요 나의 꿈을

마지막 곡 <날 사랑하심>이 끝났을 때, 이미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졌던 교인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이 소년들에게, 그리고 이 소년들과 함께 한 선생님들에게 보냈다. 주님의교회 사랑나무팀과 다니엘복지관은 이날의 소박한 공연을 위해 6개월 전부터 연습을 했다.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서는 많은 교인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누구도 그 이유를 쉽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날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었다.

> 5면으로

평화의 삶 위한 이 한권의 책 > 2

어린이 무지개 잔치 > 3

소통의 공간 청년부 > 4

장애인주일 특집 > 5

꼬마인터뷰 > 6

우리 신문은 자연보호를 위해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2014년 특집 I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평화의 삶 위한 이 한권의 책

> 함글함글에서는 2014년 연간특집으로, 각자의 삶에서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려 애쓰고 고민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다양한 형식(간증, 수필, 논설, 독후감, 여행기, 서간문 등)으로 hamletter@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정성껏 신겠습니다. **함글함글**

공흔의 방법으로 소명을 이룬 삶, 아담

“

처음에는 나우웬이
아담을 돌봤지만
곧 아담이 자신을 돌보고
변화시키고 있음을 알게 된다
결국 나우웬은 아담을 통해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을 맞는다
아담은 경쟁이 아니라
공흔의 방법으로
자신의 소명을 다한 것이다

<아담>



헨리 나우웬, 김명희 역, IVP

헨리 나우웬은 노년에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프랑스 라르슈 공동체에 가서 중증장애인 아담 아네트를 돌보게 된다. 아담은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자기 몸을 맡겼고, 나우웬은 가장 실력 없는 돌보미였지만 최선을 그 일을 감당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이 아담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자신을 돌보고 변화시키고 있음을 알게 된다. 결국 그는 아담을 통해 참된 안식을 경험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아담은 1996년 2월 3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 나우웬은 그를 떠나보내며 이 장애인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치유 사역이라는 독특한 사명을 띠고 이 세상으로 보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어쩌면 그는 36년의 시간 동안 세상에 한마디 표현도 못하였다. 하지만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어쩌면 아담은 경쟁적인 방법이 아니라 공흔의 방법으로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한 것이다.

나우웬은 아담을 떠나보내고 그 해 9월에 자신의 생애 또한 마감한다. 그 사이 나우웬은 아담과의 만남을 추억하며 이 아담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나우웬은 이 책을 통해 아담과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며, 그 선물을 통해 자신이 평생 고민하던 사랑, 우정, 공동체, 교제의 신비들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과 이웃과의 친밀감이라는 비밀들을 깨닫게 되었음을 고백한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더 나아가 우리에게도 허락해주시는 아담을 통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있다.

장수현 목사



헨리 나우웬과 아담 아네트

> '평화의 삶 위한 이 한권의 책'은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음에 도움이 될 좋은 책들을 선정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추천 도서도 환영합니다. **함글함글**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60

燔祭 (번제 burnt offering)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위에 있는 석쇠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레위기6:9)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燔祭(번제)는 짐승의 고기를 구워 바치는 제사. 희생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 소제(素祭), 화목제(和睦祭), 속건제(贖愆祭), 속죄제(贖罪祭)와 더불어 구약시대 5대(大) 제사 중 하나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이 되는 제사이다.

1. 특징 : 인간적 신분의 조건을 불이 지 않고 자기 형편에 맞게 하며,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한다.
2. 예배자가 할 일 : 안수 → 가죽 벗기기 → 각 뜨기 →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기인 데 예배에 직접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는 것이다.
3. 제사장이 할 일 : 피 뿌리기 →

나무 벌려놓기 → 고기 태우기 뿐으로 예배의 주체가 희생제물을 바치는 백성임을 암시한다.

文字的(문자적)意味(의미)

★燔(구울 번, 지질 번): '타오르는 불꽃'을 상징하는 火(불 화)와 '순서'를 나타내는 番(차례 번)을 결합하여 '불 위에 올린 고기를 차례대로 뒤집으며 굽는다'라는 의미가 된다.

★祭(제사 제): '고기'를 상징하는 肉(월육달 월, 고기 육, 몸 육)과 '손'을 의미하는 又(또 우)와 '제사그릇이나 神(신)'을 뜻하는 示(보일 시)를 결합하여 '고기를 손으로 장만하여 제기에 올리고 신에게 제사 지낸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함글함글

섬기는 손 6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이웃의 힘든 삶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21개 팀 170명 중보기도자의
기도 손

>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 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이 사역에 동참하실 분은 안경희 권사(010-9097-5265)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함글함글**

하나님의 꿈, 함께 하는 세상



2014 어린이무지개잔치 은혜 속에 알차게 열려

지난 5월 3일로 예정했던 전교인 무지개 잔치가 세월호 희생자 애도의 뜻에 따라 연기된 후, 5월 25일 “하

나님의 꿈, 함께 하는 세상”으로 주제를 바꾸어 어린이를 위한 잔치로 펼쳐졌다. 첫번째 “소통의 장”에서는 부서별 연합예배를 드린후, 체조와 버블 공연, 한마음 비빔밥 나누기 등으로 진행되었다. “나눔의 장”은 크게 “생명나눔”, “평화나눔”, “

소망나눔”으로 구성되었으며, 꽃화분 만들기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생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십자가 만들기 등을 통해 소망을 나누는 활동을 펼쳤다. 다목적 교육관 5층 강당에서 오후에 펼쳐진 “화합의 장”에서는 평화의 기도

문을 낭독하고, 가족 뮤지컬을 감상했다. 흐린 날씨에 아침에는 빗방울이 듣기도 했으나 다행히 행사 진행에 지장이 없었다. 다양한 먹거리들이 준비된 가운데, 닭강정과 핫바가 푸짐한 양과 싼 값에 인기를 독차지하기도 했다.

함글함글



화합의 상징 비빔밥 만들기



인기를 끌었던 워터바이크



종이 바구니를 만드는 진지한 시선



생명 체험의 장이었던 화분 만들기

교회용어, 이것만은 고치자 > 그리스도인이 쓰기에 바람직하지 못한 용어 편 3

귀신같다(이다) 귀신을 미화해서 어떤 일을 잘 알고 있다든지 또는 아주 잘 할 경우 이를 ‘귀신같다’, ‘귀신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말이다. 더구나 그리스도인을 이 귀신에 비유하는 것 즉 ‘김 장로님이 귀신같이 알아맞추시네’와 같은 말은 쓰지 말아야 한다.

액(厄) 액이란 ‘모질고 사나운 운수’라는 뜻인데 ‘액이 닥친다’, ‘액을 물리친다’, ‘액땀을 한다’와 같은 말은 우리가 피해야 될 말이다.

운수(運數), 운(運), 수(數), 재수(財數) 운수, 운, 수는 같은 말로 사전적인 풀이는 ‘이미 정하여져 있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천운(天運)과 기수(基數)’를 뜻하며, 재수란 ‘재물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있을 운수’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가급적 이런 말들을 피해야 한다. ‘운이 나쁘다’, ‘운이 없다’, ‘운수 사납다’, ‘재수 있다’, ‘재수 없다’ 등과 같은 말들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주팔자(四柱八字) 사주팔자란 ‘사람이 타고난 한 평생의 운수’를 말하며 이를 줄여 ‘팔자’라고도 한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는 우리는 이와 같은 말을 써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사주팔자를 잘 타고났다’, ‘팔자가 기구하다’와 같은 말을 우리는 쓸 수 없다.

터줏대감 민간 신앙에서 터주란 ‘집터를 지키는 지신, 또는 그 자리’를 말하는데 가마니 같은 것 안에 베 석자와 짚신 따위를 넣어서 달아 두고 위한다. 이 터주에 관련된 말로 집단이나 구성원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람을 가리켜 ‘터주대감’이라 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가급적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손 민간 신앙에서 손이란 날짜에 따라 방향을 달리하여 따라 다니면서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 귀신을 뜻하며 초하루와 이틀은 동쪽, 사흘과 나흘 날은 남쪽에 있다고 하며, 9일과 10일에는 손이 없는 날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이 날짜를 따져서 ‘내일은 손이 없는 날이니 이사를 하자’, ‘내일은 손이 있는 날이니 이사하지 말자’와 같은 말들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를 따르는 것도 안 된다.

운명 운명이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를 말하는데 우리는 이런 뜻을 가진 ‘운명’이란 말을 써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운명에 맡기다’, ‘모든 것이 운명에 달려 있다’와 같은 말을 우리는 쓰지 않아야겠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자료 / 함글함글 정리

> 이 면은 교회의 세대간 소통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이번호에는 청년부에서 기획, 취재, 편집을 맡아주었습니다. **함글함글**

청년예친사 2단계

예비리더교육훈련 8기 수료



청년예친사 2단계인 예비리더교육 훈련프로그램 LETS(Leadership Education & Training School) 8기의 수료식이 4월 27일(주일)에 진행되었다. LETS 훈련이 2011년에 시작된 이래 180여 명의 청년들이 헌신된 리더로 세워지기 위해 훈련을 받았다. 특별히, 이번 LETS 8기는 청년 예수친구 사역 2단계로 진행되어, 기존의 훈련

보다 심화된 강의(영성, 구원, 성경, 예배, 겨자씨 인도, 리더십)와 나눔을 통해 겨자씨 리더로 세워지기 위한 훈련을 받았다. 수료생들은 LETS 훈련을 통하여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영성을 갖춘 리더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및 세상 등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LETS 간증

진정한 리더는 예수를 닮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역을 통해 연단시키시고, 발을 씻겨 섬기시는 모습으로 리더의 모범과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리더이며 제자 된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2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예수님을 잘 알아, 하나님의 사랑, 공의, 성품을 알고 그것이 나의 가치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친밀해져 그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시기에 뜻과 마음이 같았습니다. LETS를 통하여 이 2가지를 훈련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리더는 단순히 그룹을 잘 이끄는 것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작은 예수가 되어 제자를 양성하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 하며, 그룹의 구성원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본을 보이고, 나아가 그들이 리더가 되어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임을, 8주간 Lets를 섬겨주는 스텝들과, 좋은 강의와 섬김의 예를 술평하여 보여주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김지윤** 청년

내가 힘들 때 힘이 되는 말씀

LETS수업은 하나하나가 매우 새로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생각했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많은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LETS를 시작하자고 마음을 먹고 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과제를 못하면 어떻게 할지, 혼자 신청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시작한 후에는 걱정이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제 중 외우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말씀도 일주일의 시간 안에 충분히 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먼저 다가와 주셔서 외롭지 않게 수업을 들었습니다. LETS는 나에게 성경의 지식 외에도 많은 것을 얻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 힘이 되는 말씀을 얻게 되었고 교회의 좋은 형제, 자매님들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LETS 강의에서 중요한 요점을 정리해서 알려주시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들과 그룹모임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서로 생각을 나누고 질문할 시간까지 주어진 것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김현하** 청년

청년예친사 3단계

데이트 스쿨 오월애



청년부 데이트 스쿨 오월애(吾越愛: 나를 뛰어 넘는 사랑)3기가 5월 2일부터 23일까지 '연애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진행되었다. 오월애는 청년들이 청년기에 적절한 시점에 이성과의 만남이 주어졌을 때 이를 아름답게 응답하고 지혜롭고 성경적으로 상황을 직면하

여 아름다운 가정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돕기 위해 매년 5월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별히 올해에는 기존의 오월애 강의에 재정에 대한 강의가 신설되어서 데이트와 결혼에 관한 재정계획의 실제적인 지침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김민섭 전도사

오월애 간증

‘나’를 넘는 ‘사랑’을 배웠어요

오월애. 처음에는 ‘어쩔! 오월에 태어난 나에게 설레임을 주는 예쁜 단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사랑 봄바람 부는 오월에 예쁜 사랑을 하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말이죠. 4주에 걸쳐 금요일 저녁마다 저와 비슷한 마음이라 추측되는 청년들과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첫 주에 강의를 해주신 최양숙 교수님을 통해 오월애가 오(吾), 월(越), 애(愛)- 그러니까 ‘나’를 ‘넘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잘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오월애의 해석에 강의에 대한 호기심이 모락모락 생겨났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김의수 재무상담사님로부터 ‘결혼준비와 재정’이라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듣기 전에는 단순히 ‘부부가 수입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고 어떻게 불러(?)가야 하는지 배우겠지’ 하면서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사님의 결혼 생활의 어두웠던 시기와 그 안에서 신실하게 일해오신 하나님의 섭리를 공유해 주실 때,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돈’으로 인해 자주 흔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전용관 교수님의 강의 ‘좋은 이별과 좋은 만남’을 들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동안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사랑 받기 위해 노력하기, 감정에 속기, 사랑을 거래로 착각하기, 육체적 관계에서 오는 설레임’이 실제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자 강령이기에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늘 허전한 느낌이 있다고 하실 때 제 안에 강한 동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기혼 커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각 3개월, 6년, 20년, 30년 정도 된 커플들이 첫 만남에서 결혼, 그리고 지금까지 무엇을 느끼고 깨달았는지 소중한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월애를 통해 제 안에 혼란스러웠던 부분들에 대한 가지들이 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꼭 고민해봐야 할 질문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저에게 주시는 분별력과 지혜를 통해서 형제를 ‘잘’ 만나고 ‘잘’ 결혼하고 ‘잘’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김현정** 청년

아름다운 봄 소풍

송파지역 장애인, 소외 이웃과 함께한 하루

지난 5월 12일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송파 지역의 장애인과 소외이웃 550여명이 함께 모여 은혜롭고 즐거운 봄소풍 시간을 보냈다.

예배와 함께 시작 되었고, 주님의교회 박원호 담임목사가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전했다. 램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까지 준비하여, 함께한 모든 분들이 집중하여 말씀을 들었다.

이후 다양한 공연이 진행되었고, 주님의교회와 (사)섬김과나눔에서 준비한 식사를 모두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오후 시간에는 다 함께 어울리는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갖고 행사를 마쳤다.

이번 행사는 1995년부터 시작하여

39회차에 이른다. 매 때마다 이렇게 많은 장애인들이 모일 수 있는 이유는 송파에 뜻을 같이하는 기독교 택시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가정과 복지관등을 방문하여 한분 한분을 직접 야외로 모실 수 있기에, 매 회마다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기쁨과 소망을 나눌 수 있다. 또한 매번 다양한 수준 높은 팀들의 공연이 즐거움을 더하는데, 이들은 모두 무료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행사의 후원까지 하여 훈훈한 분위기를 더한다.

행사를 진행하는 기독교 택시회의 회원은, 이 행사를 참여하면서 장애인과 소외 이웃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550명이 미사리 조정경기장에 모여 함께 한 아름다운 봄 소풍. 기독교택시인들의 도움이 있어 이 많은 인원의 이동이 가능했다.

행사라는 것을 느낀다고 고백하였다. 또한 주최측인 송파선교회에서는 매번 행사를 준비하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매번 여러 손길들을 통해 은혜 중

에 해결된다고 한다. 그리고 섬기는 모든 분들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기에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된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유성훈 목사**

> 1면에서

박원호 담임목사는 이날 설교를 통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요한 9:3)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 지극히 소중할 터이다. 이날 연주로 감동을 안겨준 사랑나무의 소년들 역시 우리가 품어야 할 소중한 아이들이다.

우리가 소중히 품어야 할 아이들

사랑나무에서는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을 양육한다. 열 살부터 열 일곱 살까지, 몸집으로는 거의 청년처럼 보이는 ‘머스마’들 열네 명이 출석한다. 교역자와 부장 등 스무명 정도의 교사들이 이 소년들을 섬긴다. 그동안 토요일에는 열시부터 열두 시까지, 주일에는 열한시 반부터 한 시간 동안 이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여러 활동도 진행해왔다. 그런데, 이 섬김이 만만치 않다. 마

음은 천사이지만, 이 소년들과는 소통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힘 조절이 잘 안되다 보니, 대부분 여성인 봉사자들로서는 감당이 안 될 때가 많다. 한 소년 마다 두 명 씩은 함께 해야 겨우 이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화장실 수발도 들 수가 있다. 교역자도 대부분은 특수교사 자격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담당한다. 전임 정은숙 전도사도 특수교사 자격을 갖고 있었다. 신임 김동민 전도사는 특수체육을 전공하여, 이

후 토요일에는 시간을 조절해서 체육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 아이 키우는 데 마을이 필요

“힘들지만, 그래서 더욱 하나님이 주신 섬김의 의미를 깊이 알게 되는 사역입니다. 사역에 몇분만 더 함께 해주신다면, 새로 오시는 교역자님과 함께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번 인터뷰를 미루다가 겨우 연락이 된 부장 탁준한 안수집사의 소박한 바람이다.

함글함글

정신학원에 깃든 한국기독교의 역사 2

우리나라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었던 제중원. 미북장로회 선교사 알렌이 개원했다.

1884년 12월 4일 일어난 갑신정변(甲申政變)은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

의 신분으로 머물고 있었다. 급진 개혁파가 민씨 정권의 인사들

을 제거하기 위해 칼로 죽이는 과정에서 왕비(명성왕후)의 조카인 민영익이 전신에 칼을 맞아 깊은 상처를 입고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다. 이 혼란 속에서 피신한 사람들은 달리 알렌이 민영익을 치료하여 완쾌시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알렌은 고종과 왕비의 신임을 얻어 시의(侍醫)로 임명되었다.

알렌은 고종에게 병원 설립을 요청했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 병원이 설립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 제중원이다. 제중원은 갑신정변의 주모자로 살해당한(현재 재동) 홍영식의 집을 개조해 개원했다.

수술실 겸 약국이 있었고, 외래 진찰실도 있었다. 이 병원에서 근무할 사람이 필요했으므로 선교사들이 본격적인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남녀가 유별한 시대였다. 왕비를 포함한 여성을 치료할 여의사가 필요했다. 알렌은 미북장로회 선교본부에 여의사 파송을 요청했다. 그리하여 입국한 여의료선교사가 후에 우리나라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인 정신여학교를 시작한 애니 엘러스이다. 그녀는 제중원에 부인과를 처음 개설했고, 왕비의 시의가 되었으며, 정경부인의 직첩을 수여받았다.

이희천 정신여교 교감

코마인터뷰

〈어머님 은혜〉 부른 그이



지난 5월 11일 어버이주일, 〈어머님 은혜〉를 불러 모든 성도를 숙연하게 한 그이, 이혜정 집사를 만났다.

어쩌면 그렇게 감동적으로 부를 수 있는가 하는 우문에 “고생하신 부모님 생각을 하면서 불렀다”는 현답이 돌아왔다.

어렸을 때부터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는데, 이를 눈여겨 본 주일 학교 선생님에게서 발성법을 배웠다. 6학년때부터 찬양대에 있으니, 교회가 그이 음악의 모태인 셈.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악을 시작했고, 유학 후 계속 대학에서 성악을 가르쳐왔다. “가르치는 시간이 곧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성악은 텍스트가 있어 더욱 함께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좋으면서,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 주신 목소리로 더 섬기려고 한다. 신앙심으로 가득찬 바흐의 음악을 좋아하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를 좋아하는 찬양으로 뽑았다. 오래 내려온 경건한 교회 음악들이 점차 세속화된 음악들에 밀려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2000년 주님의교회 출석할 때부터 2부 찬양대를 섬겨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함글함글

교회 단신

군선교팀 제3사단에서 세례예식



군선교팀은 5월 24일(토) 제3사단 23연대 십자군 교회에서 백골사단 신병 150여명에게 세례예식을 드렸다. 25명의 교우들이 참석하여 훈련을 마치고 자대배치를 1주일 앞둔 신병들에게 성경책을 선물하였다. 힘든 군 생활 중에 많은 기도와 말씀 목상을 당부하였다. **함글함글**

2014년 늘푸른대학 봄나들이



5월 20일 늘푸른대학 등록학생 및 사역자와 강사 포함 170여 명이 강원도 강릉 경포대로 봄나들이를 다녀왔다. 장거리 여행을 함께하며 바다를 보며 같은 반 학생들과 사진도 찍고 해변도 걸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함글함글**

알림

▶ 주님의교회에서 베트남에 파송한 최화평 선교사가 밀알복지재단 초청으로 베트남 빈롱성 공무원들과 우리나라 방문 중 5월 28일 수요일 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선교보고를 하였다.

▶ 제1회 주님의교회 통일선교학교 첫모임이 5월 29일(목)에 개최되었다. 이날은 “하나님의 소명, 통일”의 주제로 한꿈교회의 임용석 목사가 강의하였다.

교회사역일정

- | | |
|----------------|----------------|
| 6.1(주): 성찬주일 | 6.13(금): 금요기도회 |
| 6.8(주): 성령강림주일 | 6.22(주): 애국주일 |
| 6.9(월): 정기당회 | |

주님의교회 수화 교실



2014년 3월2일에 수화교실이 개강되어 5층 소집회실에서 수화교육이 진행중이다. 아직은 초급반 과정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2014년 연말에 초급반이 수료되면 내년에는 초급반과 중급반을 따로 개설할 예정이다.

주님의교회에서는 에바다부를 통해 농인들이 수화로 예배를 드리며 농인들에게 신앙교육과 신앙생활지도를 하고 있다. 2014년 5월 현재 에바다부에는 매주 10명~15명의 농인들이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앞으로 아직 믿지 않는 농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수화로 통역하며 농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건청인은 극히 소수이다. 최소한 농인 3~4명당 1명의 건청인 교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교사의 경우, 다른 부서는 수시로 직분 이동이 가능하지만, 에바다부의 경우 특수성으로 인해 교사 양성에 상당기간의 준비가 필요하다. 관심 있는 성도의 참여를 기대한다.

윤영범 집사/에바다예배팀